

대불대 골프연습장 불법 조성 말성

허가없이 임야 훼손 그린·벙커 만들어 수년째 사용

영암군, 원상회복 지시만... 과태료도 부과 않고 묵인

대불대학교가 관계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골프경영학과 운영에 필요한 그린 등의 시설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불대는 당국의 원상회복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상태인 임야로 회복해야 함에도 그린의 잔디를 파낸 뒤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형식상의 원상회복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의 개발허가가 나면 파낸 잔디를 그대로 다시 심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대불대는 삼호읍 산호리 골프연습장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현장확인을 벌인 결과 골프연습장 옆 임야 1690㎡ 가량에 그린과 벙커 등이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

인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통보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돼 확인한 결과 이미 그린을 위한 잔디가 심어지고, 벙커에 모래가 채워져 있는 등 무단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관련 실과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대불대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임야를 무단 훼손한 데 대해 원상회복 지시만 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대불대 그린과 벙커 등은 지난 2010년 3월 골프연습장과 함께 조성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삼호읍)는 "대불대는 그린과 벙커를 조성한 후 본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불분명해지고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외곽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배움의 전당인 대학이 법규를 무시한 채 임야를 불법 훼손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린을 제거하고 벙커를 메우는 등 원래 상태로 가깝게 회복하도록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원상회복 외에 다른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불대는 현재 학교내 캠퍼스와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나주시, 초·중학생 30명 여학연수 보낸다

여름방학 기간 美 대학에 내달 5일까지 신청·시험

나주시가 관내 초·중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와 영어캠프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나주시는 미국 웨네치 벨리대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초·중학생 30명을 보내는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어학교육, 스포츠, 음악, 문화체험 활동 등으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진행된다.

이번 어학연수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6월 5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하고 평가 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다.

비용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전액에서 지원하고, 일반참가 학생은 경비의 일정부분을 자비 부담하게 된다.

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동진대에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성적 우수자는 해외 어학연수

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중학교 3학년 40여 명은 전남 외국어고에서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간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으로 6월 중에 학생을 모집한다.

나주시는 "영어 체험캠프와 해외 어학연수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주시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농촌마을 경관개선 461억 투자

남원 요천권 등 13개 시군 45개 권역

전북도는 올해 총 사업비 461억을 투자,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와 자연·경관 등 어메니티(amenity) 증진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남원시 이백면 요천권역 등 13개 시·군 45개 권역에 달한다.

또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농촌마을 권역 가운데 익산 용포·남원 요천·완주 경천애인·무주 무풍송지·임실 박사골·순창 강천산·회문산 등 7개 우수 권역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농촌마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보다 나은 사업효과 도출을 위

해 올해 신규지구중 임실 대리만족권역에 대해 총괄 계획을 선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은 생활권·영농권·수리권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서 서해 낙조보고 불꽃놀이 즐기고

26~28일 캠핑 페스티벌

새만금 방조제 일대 오토 캠핑장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캠핑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 청년회의소가 '아름다운 서해 낙조와 함께 새만금에서 캠핑'이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각종 공연과 불꽃 퍼레이드, 가족 낚시체험행사 등 캠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부지내에는 캠핑 차량 또는 텐

트 1000동 가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자리가 배정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페스티벌 기간에는 캠핑장 사용료 1만 원을 내야한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불꽃놀이와 낚시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군산 JC 사무국·063-445-3150)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춘향골 중 관광객 '복적'

최근 '춘향골' 남원시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둘러보고 있다. 남원시는 올 들어 중국인 관광객 1500여명을 유치했다. /연합뉴스

익산 중앙 체육공원 시설 너무 넓다

콘크리트 재료 사용 축구장 이용자 부상 빈번

바닥 표면 미끄럽고 설치 공법도 잘못

익산 시민의 휴식처인 중앙 체육공원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설치 공법의 잘못으로 시설이용시 부상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익산시 축구동우회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민선 3기때 만들어진 중앙 체육공원 축구장을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 설치, 바닥표면이 딱딱하고 미끄러워 축구장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조구장 설치는 맨바닥에 보조기층 300mm, 쇠석 60mm, 석본 8mm 위

에 인조 잔디 57mm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포름 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고무와 플라스틱을 합성해 만든 제품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충전제로부터 나오는 유출수와 응해되는 화학물질은 환경에 유해하며 지하수와 하천의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 최모(47·신동)씨는 "축구장

"담양을 생태도시 허브로"

25~26일 '에코포럼' 개최

담양군이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양 에코포럼'(대표 이만)을 개최한다.

담양 에코포럼은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담양 리조트와 죽녹원, 창평슬로시티 등에서 환경전문가와 정치인, 기업인과 민간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25일에는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이어 슬로시티 슬로푸드, 생태마을 디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토론이 진행된다.

또 군과 에코포럼, 자치단체국 제환경연합회(ICLE)와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열린다.

26일에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관방제림 등 생태숲과 대나무박물관, 창평 슬로시티, 한국가사문학관, 식영정, 소쇄원 등 가사문학관을 연계한 버스타어가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에코포럼을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담양은 물론 국가적 친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생태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 담양을 생태도시 정책의 허브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을 대표로 200여명의 에코포럼 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주기로 포럼을 정례화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 관계자를 초청해 주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강진 신천지구 등 2곳

경지정리 12억 지원받아

강진군은 올해 병영면 삼인지구 배수 개선사업비(국비 88억) 확보에 이어 경지정리사업으로 강진을 신천지구 등 2곳이 선정돼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광복 예산 12억 원을 연이어 지원받게 됐다.

군은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6000만 원을 투입해 강진을 신천지구와 칠량면 명주지구 등 2개 지구 51.6ha를 대상으로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주민 설명회를 연후 세부설계와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10월 중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은 불규칙한 필지를 규모화하고 용·배수 등 정비, 경작로 설치사업 등을 하게 되고, 농민들이 내년에는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 말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1@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진지역 신도 500여명이 지난 23일 강진을 시가지에서 제등행렬 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연등행사는 강진군 사암연합회가 마련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1@

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판소리 부문은 춘향가·홍보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 중 5바탕으로, 무용 부문은 전통무용 독무로, 6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단신

26~27일 새만금 판소리·무용 경연대회

'제11회 새만금 판소리·무용 경연대회'가 26~27일 이틀간 군산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 판소리 보존회 군산지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판소리(일반부·신인부)와 무용(일반부·신인

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판소리 부문은 춘향가·홍보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 중 5바탕으로, 무용 부문은 전통무용 독무로, 6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정읍 여성문화관 다도반 다도경연 대상

정읍 여성문화관 예절과 다도반 김정숙·김복남·최혜리씨가 최근 열린 '2012 예절의 날' 기념 제16회 예절과 다도(茶道) 경연대회에서 단재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예명원과 김포 다도박물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바른 자세·절하는 모습 등 배례법, 차

우리는 모습과 마시는법 등 다례법, 걸음걸이·표정 등 모양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읍 여성문화관은 정읍 예명문화원 박명숙 원장의 지도로 예절과 다도반을 운영, 전통예절 보급과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지리산 북부사무소 야영장 푸드뱅크 운영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오토 캠핑장에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26일부터 남원시 산내면 달궁·덕동자동차 야영장에 야영객으로부터 남은 음식을 기증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야영장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야영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을 기증받아 소외계층에 전달하게 된다. 또 여름철 음식물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식품보관소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농기센터 농기계 고장 신고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농기계 고장 신고제'를 운영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농기계

교관을 비롯해 현장 경험과 농기계에 관한 풍부한 수리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2만원 이하 부품은 전액 무상으로 수리를 준다. 농기계 고장 신고(063-650-5141·650-5127) /전북취재본부=이희희기자 dhlee@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